

# 대법원 2023도144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대학생 단체 회원들인 피고인들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일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
대법원 3부(주심 대법관 노정희)는, **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**하여,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**원심판결을 확정**하였음(대법원 2024. 6. 17. 선고 2023도14420 판결)

## 1. 사안의 개요

### 가. 피고인들의 지위

- 대학생 단체 회원들인 대학생

### 나. 공소사실의 요지 ➡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위반

- 피고인들은 2021. 6. 1. 15:01경부터 15:03경까지 피고인들은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옥외집회를 주최함
  - 피고인 3은 '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 강력규탄한다'라고 적힌 옥일기를 손에 들
  - 피고인 2는 "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를 사용하려는 일본정부를 규탄하며 전범기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겠다."라고 발언한 후 피고인 3이 들고 있는 옥일기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토치를 이용하여 불로 태움
  - 피고인 2, 3은 "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정부 규탄한다"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, 피고인 1은 이를 촬영함

## 2. 소송경과

▣ 제1심 ➡ 유죄

- 각 벌금 100만 원, 피고인 3으로부터 물건 몰수

▣ 원심 ➡ 피고인들 항소 기각

- 피고인들의 행위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함
-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
## 3. 법원의 판단

### 가. 쟁점

- ▣ 피고인들의 행위가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상 '집회'에 해당하는지 여부
- ▣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

### 나. 판결 결과

- ▣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(원심 수긍)

### 다. 판단 내용

- ▣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의 '옥외집회'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